

# 디자인 형태발상 증진을 위한 심상 특성 적용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the Imagery Trait Application for Improving the Design-Form Conception

허혜영

국민대학교 디자인교육학과

Hu, Hye-young

Dept. of Design Education, Kookmin Univ.

정도성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Chung, Do-s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Kookmin Univ.

• Key words: Design-Form Conception, Imagery, Application

## 1. 서론

예비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계열의 조형발상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흥미, 능력 개발 및 신장을 위해 기존의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발상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심리학적 접근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심적 훈련은 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 교육에서도 형태발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형 발상교육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된 것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심적 특성을 활용하고자 심상 특성을 적용하고자 한다. 심상은 마음속에 재생되는 상이며, 내면세계이고 이미지의 세계이다. 이것은 학습, 경험, 기억, 환경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형 활동에 있어서 심상을 활용하여 창의적 발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 1-1.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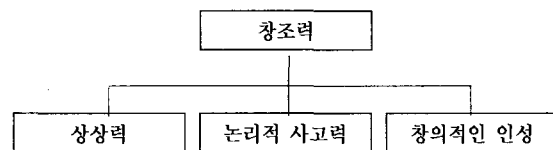
조형발상교육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자질과 발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과정이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형태발상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형태발상 증진을 위한 심상 활용에 관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 발상방법으로 인간의 심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디자인 형태발상 교육에서 심상 특성을 적용한 발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Gestalt학파 이론, 창조성과 심상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심상 특성 및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학습과정으로 심상 특성을 적용한 창조적 학습방법의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2-1. 창조성

### 1) 창조력의 개념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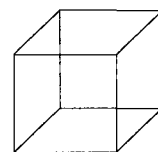


[그림1: 창조력의 개념]

창의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창의력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로는 창의력이 '무엇인가 새롭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결과중심의 생각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새롭고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내거나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출함과 동시에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 2) Gestalt학파

1920년대에 들어 Gestalt학파(Duncker, Kohler, Wertheimer)는 창조적 사고를 연구하면서 '재구성(reconstruction)'이란 개념을 창조적 문제 해결의 기본으로서 중요시했다. 재구성이란 과거 경험과는 독립적인 과정으로, 갑자기 어떤 문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과정이다. Gestalt학파는 문제의 재구성 과정을 지각의 재구성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떤 한 방향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정육면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된다. 즉, 깊이의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



[그림2 : 정육면체(Weisberg, 1986, p.41)]

Gestalt학파는 이런 재구성 과정을 뇌의 기능으로 설명했다.

## 2. 본론

1) 우종욱, 전경옥, 창의적인 교사 창의적인 학생, 서울: 창지사, 2001.

즉, 사람이 물체를 지각하면 뇌의 특정한 영역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 이 활성화된 물체의 모양(pattern)이 자동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체는 정육면체의 경우처럼 매우 다르게 보인다. 이처럼 창조적 사고에 심상의 시각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 2-2. 심상

### 1) 심상의 개념

심상은 이전에 경험한 특징을 추상화시킨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대부분 심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심상은 개념이나 이론의 기초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떠 오르는 상(象)이 사고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 속에 상이 없으면 사고할 수도 없고, 사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은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 하였다. 사고할 때 흔히 쓰는 불완전한 추상적 심상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심상의 구성과정은 여러 가지 크기의 심상을 형성시키며, 심상은 유연성이 있어서 쉽게 조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크기의 정보는 조립에 의한 심상의 크기에 달려 있다. 심상은 주로 기억과 관련하여 연구가 되고 있다. 여러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외부 정보는 심상으로 장기기억에 표상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인출해 내어 사용할 때에도 심상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sup>3)</sup>

### 2) 심상의 형태

Bourne, Dominowski 및 Loftus(1979)는 그들의 저서에서 심상에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심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심상을 정신 내부에서의 시각화 과정으로 간주하는 시각적 심상을 전제하는데 비해 이들의 견해는 독특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이 마음속에 시각적으로 어떤 대상을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라든가,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촉감 등도 떠올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각기 심상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3. 심상 특성

심상은 마음속에 경험을 생성 또는 재생하는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재생 또는 생성으로서의 심상

심상을 통해 마음속에 경험을 생성하고 재생할 수 있다. 심상은 기억에 근거하면서 외부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내부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심상은 두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부 그림들’의 조각들을 합성, 변형 등 자신의 심적 상(象)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심상은 경험들을 재생, 또는 마음의 외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과거 경험들을 회상하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2)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서의 심상

심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을 포함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 사물과 관련 있는 다른 사물을 머리에 떠올릴 때 심상을 사용한다. 어떤 물체를 보면서 심상에 있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물,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끄집어내게 된다. 이것은 대개 그 사람의 개인적 체험과 학습의 반영이며 숨겨져 있는 정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3) 외부자극의 부재로서의 심상

심상은 어떠한 외부 자극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심리상태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이다. Richardson(1983)은 각 개인의 생생한 이미지에 빠져들어 그 자신의 이미지 내용 속으로 흡수하였을 때 두뇌의 그 이미지들은 실제 외부 자극상황과 동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 3. 심상 특성 적용 가능성

각 개인의 상상력과도 같은 심상은 상상력에 의해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미지(image)는 모든 사물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며 기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특징들과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심상을 활용하여 디자인 형태발상 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지를 감상하고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며 적용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주제 설정 단계로서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상상 속에서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상상 속의 이미지를 통해 형상을 탐지하는 작업은 이전에 없던 정보까지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료 수집 단계로서 마음속의 이미지를 검색한다. 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세부사항까지 떠올려본다. **넷째**, 발상 단계로서 마음속의 이미지를 변형시켜본다. 마음속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은 놀랄 만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다. **다섯째**, 시각화단계로서 발상단계에서 결정된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발표 및 평가의 단계로서 학생간의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져 피드백효과를 가진다.

## 4. 결 론

지금까지 창조성과 심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형태발상교육에서 창조적 발상을 위해 심상을 활용하여 창조성개발을 꾀하고자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상 특성 적용 가능성과 창조적 학습과정의 방법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디자인 형태 발상교육에서 창조적 학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우종옥, 전경옥, 창의적인 교사 창의적인 학생, 서울: 창지사, 2001.
- 성은현, 창조성과 심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96.

2) 성은현, 창조성과 심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96.

3) 김진환,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2000.